

모의고사 선지 분석

2026학년도 6월

[1-4] 독서론

난이도 하 ●○○○

1.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 ②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 ③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 ④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 ⑤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①	②	③	④	⑤
1%	0%	0%	98%	0%

은우쌤과 한 방에 핵심 내용 정도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문맥이 형성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 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②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어야지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면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구나. 따라서 의미를 확정 짓는 것이 필요하겠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훈 문제점 해결책 구도를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동형이의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구나.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거구나.



일단 지문 읽을 때부터,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동'음'이의어랑 동'형'이의어를 구별해야겠어. 실수 조심하자. 다음 번엔 '발음'과 '표기'를 혹시 바꿔서 낼 수 있어.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다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 어순만 바뀌어.

④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동형이의어에서의 단어들의 사용 빈도가 비슷한지를 물어보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 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동형이의어도 ‘고빈도 단어’가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교훈 서술어를 반대로 썼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 다른

⑤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비례 반비례 정보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 제약성이 강하면 →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비례 반비례 정보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것을 지문을 읽자마자 미리 생각하고 있자.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난이도 하 ●○○○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맥에 따라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 ②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 ③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 ④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 ⑤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 낸다.

①	②	③	④	⑤
0%	0%	0%	1%	98%

은우쌤과 한 방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므로, 핵심을 다시 한번 되내고 가야한다..

Step 1 ㉠이 무슨 뜻이지?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형이의어가 나오면 ‘문맥’을 통해 ‘여러’ 의미 중 ‘하나로’ ‘확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네.

①문맥에 따라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 ‘확정’해야 한다고 했지, ‘새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다.

②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려야’ 하므로, 다른 단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동형이의어 내의 여러 의미의 확인 ‘순서’를 물어보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 독자는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부터 떠올린다.



지문 읽을 때부터, 순서 정보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부터 확인하게 된다.

★ **교훈** 순서를 뒤집어 냈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 자주 쓰는 것부터

④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다양하게’는 옳지 않아.

⑤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만약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	----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부터 확인하게 된다



당연히 고빈도 단어 '부터' 확인하는데, 적절한 문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다른 단어를 확인하겠지.

난이도 하 ●○○

3.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 읽은 글과 이에 대한 대화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수가 길을 걷다가 배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몇 개사서 집에 돌아온 그는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자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이 글에서 '배'와 '다리'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말해 볼까요?

학 생: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 중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걸고 있는 곳이 바닷가면 선박일 것 같고, 시장 근처면 과일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그 '배'가 과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리'는 바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신체 부위로 이해해야 '다리를 베고 자던'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요.

- ① ㉠: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군.
- ② ㉡: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던 것이겠군.
- ③ ㉢: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④ ㉣: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의 문장들과 연관 지어 '배'의 의미를 확정했던 것이겠군.
- ⑤ ㉤: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여 '다리'의 의미를 신체 부위로 확정했던 것이겠군.

①	②	③	④	⑤
1%	0%	98%	1%	0%

은우샘과 한 방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①㉔: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에서 배라는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선박인지 과일인지 확정이 어렵다고 하였어. 이게 제약성이 약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 제약성이 약하면 → 확정을 유보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군.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를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 교훈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다 = 의미 확정을 유보하다'이다.

②㉔: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던 것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에서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어. 이를 첫 번째 문장의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 제약성이 약하면 → 확정을 유보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던 것이겠군.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를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 교훈 '두 가지로 해석 = 의미 확정을 유보하다'이다.

③㉔: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에서, 둘 다 자연스럽다고 했어. 옹? 그러면 문맥에 두 개의 의미 모두가 '어울린 것' 아닌가?

→ 그런데, 동형이의어의 두 의미 모두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린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언제 우리가 의미를 확정을 하는지, 못하는지에 관해 명확하게 읽고 선지로 왔어야 했다.

④㉔: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의 문장들과 연관 지어 '배'의 의미를 확정했던 것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에서부터 의미를 확정할 수 있었네. 세 번째 문장부터 배의 의미를 확정한 것 맞아.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 여러 문장이 연결되면서 문맥이 형성되고, 이 문맥의 제약성에 따라 확정 지을 수 있다. 여러 문장을 봐야지만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군.

⑤㉔: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여 '다리'의 의미를 신체 부위로 확정했던 것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는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다리를 베고 자던'을 보고, 바로 신체 부위로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어. 그럼 이것은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한 것 맞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4-9] 독서

난이도 **중하** ●●○○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89%	2%	4%	4%

은우쌤과 한 방에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는 문제이다. 글 전체의 흐름을 한번 더 정리하여, 빠르게 정답만 찾아가야 한다. 절대 소거법으로 풀지 말자.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가)는 ① 특정 개념이 나오고, ② 그것의 ‘의의’와 ‘가치’를 제시한다는 말이군.

(나)는 ① 특정 개념이 나오고, ② 그것이 변화하며, ③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는 말이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 (나)는 변화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제시하지 않는다.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가)는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해결책이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군.

(나)도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그것을 법과 같은 제도로 해결한다는 말이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는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해결책이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군.

→ 1문단에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2문단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나왔다.

(나)도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그것을 법과 같은 제도로 해결한다는 말이군.

→ 1문단에서는 계약이 우선될 때의 문제점이 나와서, 이를 법률로 해결하고, 2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4문단에서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문제점이 나오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 재판 절차 및 분쟁 조절 절차가 나왔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가 나왔네. 일단 (가)부터 제대로 읽어보자.

(가)는 ① 학자의 이론이 나오고 ② 이론의 사례가 나온다는 의미군.

(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는 말이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는 ① 학자의 이론이 나오고 ② 이론의 사례가 나온다는 의미군.

→ 학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는 말이군.

→ (나)는 둘 다 만족하지 않았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가 나왔네. 일단 (나)부터 제대로 읽어보자.

(나)는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해결책이 과할 경우 ③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군.

(가)는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는 소리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나)는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해결책이 과할 경우 ③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군.

→ 1문단에서 <계약>법률이면 생기는 문제점이 나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률>계약이 나왔다. 하지만 해결책이 과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가)는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는 소리군.

→ ①, ②, ③ 모두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모두’가 나왔네.

(가)는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해결책이 나오고 ③ 한계점이 나오고

④ 새로운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말이군.

(나)는 ① ~ ④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는 ① 문제점이 나오고 ② 해결책이 나오고 ③ 한계점이 나오고

④ 새로운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말이군.

→ 1문단에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점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나온다. 하지만 2문단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한계점이 나온다. 그리고 3문단에서 해결책으로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나온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① ~ ④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군.

→ 1문단에서 <계약>법률의 문제점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률>계약이 나왔다. 하지만 해결책에 대한 한계점이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지도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설명문’이다. ‘제안’이라는 단어는 ‘논설문’에나 쓸 수 있다.

난이도 중하 ●●○○

5.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 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 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①	②	③	④	⑤
3%	6%	84%	5%	1%

은우쌤과 한 방에 [A]처럼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면서 +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는, 핵심을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는 게 좋다. 소거법으로 푸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Step 1 [A]와 ㉠을 이해해보자.

[A]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 된다. ㉠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 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 법 규범> 문화적 도덕적 규범(자율적 조절 기능)이 되면서 법 규범이 점점 더 범위가 커지는 것이 ㉠의 의미이다.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법 < 자율적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군.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근대법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게 되면서, 해결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군.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 되기도 어렵다.

→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 또한, 속도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③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법의 해결 과제의 범위가 커졌다는 것이군.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 교훈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을 알아 챌 수 있어야 한다.

④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법 규범 < 문화적 규범이라는 뜻이군.

⑤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법 규범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군.

난이도 중 ●●○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 ②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 ③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④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 ⑤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①	②	③	④	⑤
2%	9%	5%	79%	5%

은우쌤과 한 방에 [(가)에 나온 각 입장들의 핵심을 물어보고 있다. 각 입장별로 중요시하는 내용은 지문을 읽으면서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가)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Step 1 (가)를 이해해 보자.

(1문단)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한의 법, 최대한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1문단)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법이 더 커지면서 평등과 연대를 구현한다.

(3문단)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 법은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보장한다.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계약 > 법'이라는 말이군.

Step 2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 '계약 = 자유'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따르면, 약자보호를 위해, 법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겠군.

Step 2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평등과 연대를 추구한다면, 법으로써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볼 수 있겠다.

★ **교훈** 이중부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Step 2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 **교훈** 같은말, 다른 표현에 익숙해져야겠다.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가 나왔네.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겠군.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다는 말이겠군.

Step 2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겠군.

선지	지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자유'를 중요시한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자유'가 없는 것이겠다.

-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겠군.

선지	지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겠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을 중요시한다. 임대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면,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Step 3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 은 모두
 → 있어야

-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모두'가 나왔다.

- 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② 절차주의적 법 모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Step 2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 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선지	지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인지 아닌지를 중요시한다. 대등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 ② 절차주의적 법 모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선지	지문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논의와 협상을 하도록 한다. 이는 당연히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기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난이도 중 ●●○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②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 ④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9%	5%	63%	4%

은우쌤과 한 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핵심을 잡고 가야한다. 이때,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여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Step 1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3문단)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㉔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했거나 → ㉔임대차 종료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 OR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 또한 보증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

➡ 이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했다는 내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제력'으로 고르면 절대 안된다.

많이 고른 선지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경제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②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권리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③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권리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④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권리로 접근하고 있다.

⑤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경제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난이도 중상 ●●●●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①	②	③	④	⑤
3%	13%	12%	18%	53%

은우샘과 한 방에 지문의 조건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보기>에서도 이 조건들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Step 1 지문의 조건들을 잘 정리해보자.



조건은 AND조건과 OR조건을 꼭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1 법)계약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AND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AND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AND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AND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 법에 따라 임대차가 연장된다.

2 계약)법인 경우

→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했거나(임대차 종료후)
OR 임차인이 경제력이 충분하면(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 법이 아닌, 계약을 따른다.

3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원칙: 재판 절차
예외: 합의시 → 분쟁 조정 절차

Step 2 지문의 조건에 맞게, <보기>를 정리해보자.

주택	상가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에게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을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	---

➡ 정리 ① 법>계약 조건 중에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에 해당하는 정보만 없다.

➡ 정리 ① 법>계약 조건 중에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을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대차가 연장되지 못할 것이다.

➡ 정리 ② 계약>법 조건 중에서 '임차인이 경제력이 충분하면(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을 만족한다. 따라서 계약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 정리: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정리: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Step 3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했으므로, 법에 따라 연장되지 못한다는 의미군.

②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Step 3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은,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③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Step 3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임차인이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군.

많이 고른 선지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Step 3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을의 의사가 없더라도 갑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갑에게 자유가 보장된 것이라는 말이군.

⑤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Step 3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이군.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 갑과 을은 스스로

[10-13] 독서

난이도 중하 ●●○○

10.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 ③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 ④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 ⑤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	3%	3%	7%	86%

은우샘과 한 방에 핵심 내용은 기억해야 하고, 세부 내용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①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재생에너지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와, 그때 탄소 배출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 재생에너지로 → 전기를 만들고 → 전기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 교훈 선지에서는 '에너지원'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MCH가 휘발유와 유사한지를 물어보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 교훈 어순만 달라진 정도다.

③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광분해 방식을 하면,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 광분해 방식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통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한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므로, 광분해 방식 또한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항상 '분류'를 할 때는 공통점,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 **교훈** 정확하게 '광분해 방식'이 → 암모니아를 분해하는지가 지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보다 상위 개념인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 (전기분해+광분해+열분해)'가 암모니아를 분해한다고 했다.

④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로, 수소와 산소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4문단) (수소 연료 전지의)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 수소 연료 전지는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산화 극에는 수소가 공급되며, 환원 극에는 산소가 공급된다. 즉 수소와 산소는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 **교훈** 분산된 정보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⑤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이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 즉, '수소 이온'과 '전자'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것이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4문단)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 수소 연료 전지는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화 극에서는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이후 수소 이온과 전자의 이동 통로는 구별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 **교훈** '분석'해서 설명하면,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머릿속에 박고 가야 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 전자와 달리 전해질을 통해

난이도 중하 ●●○○

1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 ㉡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 ㉢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 ㉣은 ㉡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 ㉤은 ㉡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	㉡	㉢	㉣	㉤
2%	4%	3%	87%	5%

은우샘과 한 방에 둘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모을 수 있어야 한다.

㉠ ㉠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 일단, MCH는 ‘액체’이므로 MCH의 누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 또한 누출 위험의 원인은 증발 ‘기체’ 발생이라고 하였으므로, MCH는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 **교훈** ‘액체’와 ‘기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낮다

㉡ ㉡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독성이 낮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 위험성은 따라나오는 개념이니까.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암모니아의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암모니아)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암모니아는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교훈** 당연한 문장으로써 인지되어야 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 높아 → 크다

㉢ ㉢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암모니아를 운송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 암모니아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운송할 수 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치 않다. 그리고 이것이 이는 수소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	----

㉔(암모니아)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암모니아는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 **교훈** '부정어'가 있는 문장은 항상 꼼꼼하게 봐야하는 이유가 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㉔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④ ㉔은 ㉔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과 ㉔의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를 세라는 거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㉔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 MCH 분자는 세 개의 수소 분자와 톨루엔 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MCH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분자 하나엔 2개의 수소 원자가 저장된다. 수소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MCH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를 각각 저장한 세 개의 수소 분자로 구성되므로, 결국에는 MCH분자 하나엔 총 여섯 개의 수소 원자가 저장될 것이다.



'각각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곱하기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면 되겠다!

(3문단) ㉔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 하지만, 암모니아 분자엔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㉔은 ㉔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①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②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 **교훈** 그대로 나와있지 않다. 직접 추론해야만 한다.

⑤ ㉔은 ㉔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를 보니, ㉔과 ㉔의 차이점을 묻는 부분이네,

→ ㉔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고, ㉔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겠어.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므로, 석유(휘발유)를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3문단)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 암모니아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운송할 수 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이는 수소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난이도 중 ●●○

12. 밑줄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수소 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였으며,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되었다.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이 최종 물질로 상당량 생성되었다.

- ①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 ②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 ③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작겠군.
- ④ ㉡는 ㉠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 ⑤ ㉡에서는 ㉠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①	②	③	④	⑤
5%	7%	7%	70%	11%

은우쌤과 한 방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를 보니 차이점을 묻는 거겠군.

⇒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고, ㉡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는지 확인해야겠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고,
(3문단)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언급된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통해 수소를 추출한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 =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므로, 열분해 방식을 사용하건 전기분해 방식을 사용하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는 생성될 것이다.

㉡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 전기분해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이용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질소 기체가 생성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고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 교훈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 해야했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 공통점으로 묶기 위해 ‘모두’, 혹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다.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 ㉠와 ㉡ 모두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②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가 있으므로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군.

→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고,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부반응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겠군.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4문단)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 ‘부반응=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이다. 즉, 원치 않는 반응물이 만들어진다면 모두 부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문단)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이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이므로. 따라서 부반응의 결과물이라고 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

→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아닌 다른 물질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결과물로 생성되어야 ‘부반응’에 의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부반응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겠군.

→ 전기분해 방식에서 암모니아 분해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수소 기체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이다. 따라서 부반응의 결과물이 아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①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②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 교훈 두 문장을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냈군.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와 → ㉠과 ㉢ 모두에서, 수소 기체는 부반응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겠군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③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작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보다’가 나왔으니 둘을 비교하는 것이겠군.

→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과,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을 비교해야겠다.



비교가 나오면 항상 ‘주체’를 잡고, 서술어를 확인해라. 그래서 ‘㉠이 전환율이 작겠군’만 확인하면 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며, 열분해 방식에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진다고 하였다.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다. 즉 전체 암모니아 중에서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전환율은 이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응 암모니아/전체 암모니아=전환율

<보기>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 몰을 공급했을 때 6 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였으며,

→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10몰을 공급하였고, 6몰의 암모니아가 반응하였다. 이를 전환율 공식에 대입해 보면

6/10=0.60이다.

→ 정리하자면 전기분해 방식에서의 전환율=0.60이고, 열분해 방식에서의 전환율=0.90이다.

→ 따라서 ㉠(열분해 방식)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크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작겠군.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 지는데,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 몰을 공급했을 때 6 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였으며,

★ **교훈** 전환율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작겠군.**
→ **크겠군**

㉣ ㉢는 ㉠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비교’라는 말이 나왔으니, 크기 비교를 해줘야 하겠군.

→ ㉢가 ㉠보다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비교가 나오면 항상 ‘주체’를 잡고, 서술어를 확인해라. 그래서 ‘㉢가 더 적은 수소기체’만 확인하면 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다. ㉠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며, (중략)

→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율 개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전체 암모니아에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와 ‘반응하지 않은 암모니아’가 존재한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에서만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생성될 것이다. 그리고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으로 일정하다.

<보기>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 몰을 공급했을 때 6 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였으며,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되었다.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이 최종 물질로 상당량 생성되었다.

→ 한편 보기에서는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했다. 마찬가지로 ‘반응한 암모니아’에서만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생성될 것이다. 그리고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으로 일정하다.

→ 여기서 생산된 수소 기체의 몰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양을 늘리거나(전환율을 늘리거나) 더 많은 암모니아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지에서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전환율이 높은 쪽에서 수소 기체가 더 많이 생성될 것이다.

→ ㉠(열분해 방식)의 전환율은 0.9 이상이고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의 전환율은 0.60이므로, ㉠(열분해 방식)의 전환율이 더 크므로 ㉢보다 더 많은 수소 기체를 생산할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는 ㉠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①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다. ②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 지는데, ③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 몰을 공급 했을 때 6 몰의 암모니아만 반응 하였으며

★ **교훈** 전환율의 개념과, 반응물의 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등급 이상만 어려운 길도 한번 연습해보자!

선지에서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체 암모니아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암모니아를 10만큼 공급했다고 하였으므로 ㉠(열분해 방식)에서도 공급된 암모니아의 양을 10으로 가정하고 각 분해 방식의 경우에서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양을 예측해 보자.

-㉠(열분해 방식) : 열분해 방식의 전환율은 0.9 이상이라고 하였다. 0.9로 놓고 계산해 보자. 이는 공급된 암모니아 중 90%가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반응한 암모니아의 양 = $10 \times 0.9 = 9$ 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 생성된 질소 기체 : 생성된 수소 기체의 몰 수는 2:1:3 비율이 성립한다. 반응한 암모니아의 양을 비례식에 대입하면 9 : 4.5 : 13.5이다.

생성된 수소 기체의 몰 수는 공급된 암모니아의 몰 수에 비해 1.35배인 것이다.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 : <보기>에서 전기 분해 방식은 암모니아 10 중에 6만 반응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기 분해 방식의 전환율은 0.6이다.)

반응한 암모니아의 양 = 6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 생성된 질소 기체 : 생성된 수소 기체의 몰 수는 2:1:3 비율이 성립한다. 반응한 암모니아의 양을 비례식에 대입하면 6 : 3 : 9이다.

생성된 수소 기체의 몰 수는 공급된 암모니아의 몰 수에 비해 0.9배인 것이다.

이때 두 경우에서 공급된 암모니아의 양이 같으므로, 암모니아의 몰 수도 같을 것이다.

㉠(열분해 방식)의 몰 수는 1.35배이고,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의 몰 수는 0.9배이므로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는 ㉠(열분해 방식)과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할 것이다.

㉤ ㉢에서는 ㉠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달리'가 있으므로 차이점을 묻는 것이겠군.

→ ㉤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고, ㉠에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에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3문단)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는 2:1:3이다.

→ 방식에 상관없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통해,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에는 2:1:3의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즉,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가 20이면, 수소 기체의 몰 수는 항상 3이라는 것이다. 이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수소 기체의 몰 수가 항상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 아니겠군.

→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 : 생성된 수소 기체의 몰 수 = 2:3이다. 이 비율 관계는 열분해 방식에서도 성립하므로,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생산된 수소 기체의 몰 수가 더 많을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에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 아니겠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는 2:1:3이다.

★ 교훈 몰 수의 비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했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에서는 ㉠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과 ㉢ 모두에서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14-17] 독서

난이도 중하 ●●○

14.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 ②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 ③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 ④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 ⑤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	4%	89%	4%	1%

은우쌤과 한 방에 입장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경험주의와 플로리다 정보 철학의 공통점을 물어보는구나.



지문 읽으면서 머릿속에 박혀야 하는 거지만, 만약 기억이 안난다면 ‘있음’이라고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지문에서도 그대로 있을테니 빠르게 찾고오자.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과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있음’의 개념은 서로 ‘다른’ 뜻을 지닌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 교훈 선지에서 ‘달리’가 보이면 집중해서 봐야 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 다른

②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인간과 영향을 주고 받는 정보가, 전달될 때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되는지 물어보고 있어.



‘모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신경써서 읽어야 돼!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 음성의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정보적 상호 연결의 ‘예시’에 불과하다. ‘일부’의 상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지문 어디에도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가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만약, 위 예시에서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하는’ 대신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다면,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음성 정보’가 아닌 ‘시각 정보’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사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 **교훈** 음성 정보는 하나의 예시로 나올 뿐이다. 음성 정보라는 예시가 나온 것으로,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 일부

③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보이니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겠군.

→ '사물'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모두 정보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따르면 세계 내 '모든' 존재의 속성이 정보로 환원된다. 따라서 '사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속성 역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 **교훈** 지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공통점이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군.

④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생략되는지 물어본다.



어순이 뒤집혀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 추상화 층위에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만' → '생략되지' 않고 정보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 **교훈** 보조사 '만'의 의미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 부합하지 않는

⑤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하나의 정보적 존재와, 다른 정보적 존재와의 연결 관계의 개수를 물어보는구나.

→ 그런데, 가능성이 0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네? 다시 말해, 둘 이상 맺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 오직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군.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중략)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다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에서 ‘인포그 = 정보적 존재’이다.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인포그이며, 상호 연결된다. 즉 ‘하나’의 인포그는 세계 내 ‘다양한’ 인포그들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하나의 정보적 존재(=인포그)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다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 교훈 ‘인포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으며, ‘인포그 들끼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 **있다**

난이도 중하 ●●○○

15.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 ②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 ③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 ④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 ⑤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5%	4%	4%	85%

은우쌤과 한 방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핵심을 잡고 예상하고 들어가야 한다.

Step 1 ㉠이 어떤 의미지?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다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 추상화 층위에서는 주체의 목적에 따라 정보로 인식되느냐, 생략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 말은 결국 주체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구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발견’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다.

①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은 안되고, 특별히 온라인에만 한정된다는 것이겠군.

→ 근데 벌써,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가 구성되었다는 내용의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Step 3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플로리다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 ‘인포그가 속한 공간 = 인포스피어’이다. 인포그인 우리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 동시에 속하므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 교훈 ‘전체’라는 표현이 있으니 이런 선지가 가능한거네.

Step 5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모두에 해당한다

②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체가 A라는 추상화 층위를 택하면 → 인포그가 행위자
주체가 B라는 추상화 층위를 택하면 → 인포그가 대상

→ 행위자와 대상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는 말이네.

→ 근데 벌써,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가 구성되었다는 내용의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Step 3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 인포그끼리는 상호 연결된다. 따라서 주체도 인포그이지만, 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 역시 인포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와 상관없이, 행위자와 대상 모두 인포그에 해당한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 교훈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런 선지가 가능한 것이군.

Step 5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 행위자와 대상 모두에

③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 매개가 되면 →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 객관적이라는 말이겠군.

→ 하지만, 이미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Step 3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 추상화 층위에서의 인식적 매개는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한다. 따라서 추상화 층위의 매개에서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란 건 누군가의 목적이나 관심과 무관하다는 의미야.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 **교훈**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한다 = 주관적'이다.

Step 5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 **주관적**

④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공간이 허구인지 물어본다.
- 하지만, 이미 '허구'가 아니라고 하였다.

Step 3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중략)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 = 인포스피어'이다. 이는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가 아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 **교훈** '부정어'가 있는 문장은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Step 5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 **허구가 아니다**

⑤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주체가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지에 따라 →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란 정보가 바뀐다는 의미네.
- '선택', '구성'이라는 의미와 잘 연결된다!

Step 3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중략)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 ㉠에서의 '구성'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주체의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 또한, 주체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포그의 속성만 정보로 인식한다. 따라서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어떤 관점(=목적)을 통해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주체가 어떤 관점을 통해 인식하는지에 의존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 **교훈** 목적(=관점)에 부합하는 속성만 인식되므로, 정보는 '목적'에 의존하는 것이 맞군.

난이도 중상 ●●●●

16. 밑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ㄱ~ㅁ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ㄴ.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ㄷ.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ㄹ.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ㅁ.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① ㄱ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② ㄴ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③ ㄷ은 인간중심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④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⑤ ㅁ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15%	7%	12%	11%

은우쌤과 한 방에 1 이 지문은 각 입장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각 입장을 기억하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기억이 안난다면 최소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은우쌤과 한 방에 2 선지의 표현인 '상충하다'는 '다르다'와 같은 말이므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① ㄱ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ㄱ의 내용이 플로리디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 플로리디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인간이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의 ㄱ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ㄱ: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문단)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 교훈 '부정어'가 나오면, 꼭 정확하게 체크하자!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ㄱ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상충한다

많이 고른 선지

② ㄴ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ㄴ의 내용이 플로리디와 상충한다고 말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 플로리디는 정보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구별되어, 정보를 발생시키는 주체인 동시에 대상인 인포그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따라서 모든 정보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ㄴ의 입장과 상충한다.

(1문단)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 예를 들어, '빵이 지닌 속성 ≠ 인간의 행위'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도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ㄴ.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1문단) 플로리디의 정보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 교훈 플로리디의 '인간'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③ ㄷ은 인간중심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ㄷ의 내용이 플로리디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1문단)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중략)

⇒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정보와 독립적으로(=별개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 따라서 이는 ㄷ과 일치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ㄷ.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1문단)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

★ 교훈 '별개로 = 독립적'이다.

④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뉴턴과는 상충하지 않고,
② 플로리디와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한다.

⇒ 두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①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한다.

(3문단)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중략)

⇒ 뉴턴은 공간이 주체의 인식과는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는 공간이 주체의 인식 경로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의 ㄹ과 상충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ㄹ.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문단)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 '관계없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했다.

② ㄹ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3문단)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주체가 속한 공간)가 주체의 인식적 매개 경로인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된다고 본다.

⇒ 따라서 이는 ㄹ의 내용과 일치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ㄹ.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 교훈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⑤ **ㄹ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고,
- ② 플로리디와는 상충한다.

➡ 두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 ① **ㄹ**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 찾아봐.

(2문단)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중략)**

➡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한다.

➡ 따라서 이는 **ㄹ**과 일치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ㄹ.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 **교훈**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도덕적으로 대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한다.'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ㄹ**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2문단)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 플로리디는 '인공물' 역시 '있음'의 내재적 가치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인공물로까지 확장한다. 즉 인공물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이는 **ㄹ**과 상충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봐.

선지	지문
ㄹ.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 **교훈** '인공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난이도 중 ●●○

17. <보기>는 플로리다와 학생이 나는 가상의 대화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 의지는 없는 인공 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AI-TCS)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 보죠.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플로리다: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포이에티쿠스’라 부릅니다.

학생:선생님께서서는 ㉠ 보시는군요.

- ①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칸트 윤리학 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 ②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 ③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 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 ④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고
- ⑤ AI-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가꿔 나가는 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①	②	③	④	⑤
12%	65%	6%	12%	4%

은우샘과 한 방에 <보기>는 도덕 행위자의 범위에 대한 칸트와 플로리다의 견해 차이의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말한 도덕 행위자의 기준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알고 선지로 들어가야 한다.

(2문단)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중략)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다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는 인공물(=AI-TCS)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등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반면, 플로리다는 인공물 역시 도덕 행위자에 포함되며,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①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칸트 윤리학 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 ②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 두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 ①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보기>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포이에티쿠스’라 부릅니다.

→ 플로리다는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인간’을 호모포이에티쿠스로 부르며, ‘AI-TCS’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 는 '호모포이에티쿠스'라 부릅니다.

⇒ 인간만을 '호모포이에티쿠스'로 한정하였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②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2문단)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중략)

⇒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보는 칸트 윤리학에서 AI-TCS와 같은 인공물은 도덕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

★ 교훈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였다.

②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①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② 플로리다는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 두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①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2문단)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중략)

⇒ 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가 있음 =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이다. 따라서 인간만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본 칸트는 AI-TCS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

★ 교훈 인간만이 도덕행위자라는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Step 2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② 플로리다는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보기>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AI-TCS)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 플로리다 역시 AI-TCS가 도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플로리다는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시스템(AI-TCS)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③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인공물을 관리할 책임이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는 것이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보기>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므로.

⇒ 플로리다는 AI-TCS와 같은 인공물들은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인간(=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본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 교훈 선지에서 핵심만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④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고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① 플로리다는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칸트는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두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① 플로리다는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보기> 그 시스템(AI-TCS)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 플로리다는 칸트와 달리 AI-TCS와 같은 인공물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플로리다는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시스템(AI-TCS)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② 칸트는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2문단)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중략)

⇒ 칸트에 따르면, 오직 자유 의지가 있는 인간만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

더군다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규칙을 변경함 = 자유 의지가 없음’이므로, 프로그램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 의지가 없는 AI-TCS에 대해서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칸트는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⑤ AI-TCS와 같은 인포스피어가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보기>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 플로리다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18-21] 현대소설

난이도 하 ●○○○

18.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②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③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하였다.
- ④ ‘화가’는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 ⑤ ‘화가’는 표구한 종이의 글에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며 ㉤이 점차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	1%	1%	2%	95%

은우쌤과 한 방에 ㉠~㉥은 모두 주요 소재인 ‘휴지’이다.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때 각 표현에 녹아 있는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도 잘 파악해야 된다..

①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화가’의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녹아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화가: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 ‘화가’의 표구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 교훈 ㉦의 주변부를 잘 보자.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있다

②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화가’가 눈앞의 종이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휴지는?”

→ ‘화가’가 휴지를 쓸모 없어 한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휴지는?”

★ 교훈 ‘휴지’라는 말에서 이미 쓸모 없음이 드러난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필요 없는 것

③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하였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표구사 주인이 화가의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굉장한 겁니다. 이걸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가웃거렸다.

→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가웃거렸다.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하였다.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 교훈 ‘갸웃거렸다 = 비동의’이다.

④ ‘화가’는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화가’가 물건을 찾으러 간 이유가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를 물어 본 것이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펼쳐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 화가인 ‘나’가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는 표현에서, 국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가’는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펼쳐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 교훈 ‘화가’가 ‘나’임을 알아야 했다. 또한 “A나 되는 것 같았다”는 것은 A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⑤ ‘화가’는 표구한 종이의 글에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며 ㉠이 점차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화가’가 종이의 글에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고
- 2 ㉠이 점차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도 인식한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그저 걸어 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 액자는 중심점이 되어갔으며,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함을 느끼고 있다.

난이도 하 ●○○○

1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 내고 있다.
- ④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	1%	1%	2%	95%

은유샘과 한 방에 [A]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A]만 읽고 푸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보통의 이런 문제들은, 앞부분에서 Target을 설정하고 난 후, 뒷부분에서 그 효과를 서술한다.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 ②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 ➡ 간접 인용이 없다.
- ②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인물에 대한 비판도 없다.



간접 인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한다.
ex) 개 아까 집에 간다고 하던데.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 ➡ 편집자적 논평은 없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인물 간의 갈등도 없다.



편집자적 논평은 알고 있어야 한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간다.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 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 ②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 ➡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는 부분이 없다.
- ②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인물의 상반된 태도도 없다.



사건을 병렬한다는 의미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병렬’의 반대말은 ‘인과’이다.

병렬: 사건을 나열하는 것.

인과: 사건에서 선후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④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 ②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 ②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통장을 확인할 경향도 없이.

→ 장면 서술의 마지막이, 추측하는 진술이 아니다.

→ 또한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는 부분도 아니다.

⑤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 ②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 ②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난이도 중 ●●○

20. 편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 ②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 ③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 ⑤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78%	10%	3%	2%

은우샘과 한 방에 편지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를 다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편지 1]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갔다한다. 장손이 장가갔다.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가려들고왔더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편지 2]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났다.

[편지 3]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편지 4]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돈조타.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①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수신자는 본디 청년일 것이다. 청년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갔다한다. 장손이장가갔다. 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 가려들고왔더라.

→ [편지 2]에서 우물 집 할머니와 장손, 곰보영감딸, 구장네 탄실이, 읍의 서기, 앞 집 점순이 등,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이 전달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갔다한다. 장손이장가갔다.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 가려들고왔더라.

★ **교훈** 여러 사람들이 나열되었다. 나열되는 곳에서는 문제가 꼭 하나 이상 나온다.

②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청년의 혼사 일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지지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편지 1]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편지 4]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 두 번이나 장가와 관련하여 얘기하고 있다. 장가 안간 청년에게, 장가를 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 **교훈**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온다.

③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편지 3]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 밥 먹고 배 아플 때 소금 한 줌 먹으라는 대처법을 제시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 **교훈**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내용 일치로 나왔다. 보통은 정답이 아니다.

④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

→ 고기(단백질)를 못먹으니까 콩나물이라도 먹으라고 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

★ **교훈**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내용 일치로 나왔다. 보통은 정답이 아니다.

⑤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재물보다 수신자인 청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편지3]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편지4]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두번이나 엄마는 돈보다 청년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교훈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온다.

난이도 중 ●●○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 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 난다.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①㉠에서 ‘지계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②㉡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을 다시 이어 간 것은, ㉡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③㉠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④㉠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⑤㉠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①	②	③	④	⑤
4%	71%	6%	14%	5%

➡ 은우쌤과 한 방에 <보기>의 지문은 지독하게도 구조를 맞춰놓는다. 진짜 꼼꼼히 읽어야 한다.

Step 1 <보기>를 이해해보자.

→ 수신자는 본디 청년일 것이다. 청년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다.

㉞내화	㉠외화	㉡또 다른 내화
‘청년’	‘화가’	‘편지’
연결	삽입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화에서는 ‘화가’가 주요 인물이니, 이를 중심으로 읽어야겠으며, 내화는 ‘청년’이 주요 인물이니, 이를 중심으로 읽어야겠으며, 또 다른 내화는 ‘편지’가 주요 내용이니, 이를 중심으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 외화와 내화로 연결, 외화 사이에 또 다른 내화의 삽입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에서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에서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 ②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 ③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 ①과 ②의 부분이, ③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문단’안에 이어 연결된 것인지를 따져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빠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보이는 그 꺼먼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 ‘지게꾼이 있단다’는 ㉠부분이며,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부분이다.

→ 이 둘은 한 문단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에서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빠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보이는 그 꺼먼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 교훈 꼼꼼하게 다 따져줘야 된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②㉡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을 다시 이어 간 것은, ㉡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 ② ‘이게’로 ㉠을 다시 이어 간 것은,
- ③ ㉡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 ①과 ②의 부분이, ③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적 선후가 역전’된 것인지를 따져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 청년은 뒤통수를 굽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

→ ‘구석으로 갔다’는 ㉡부분이며, ‘이게’는 ㉠부분이다.

→ 이 둘의 시간은 역전된 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A(전)→B(후)’이다. 시간의 역전은 ‘A(후)→B(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부분이 전이며, ㉠부분이 후이다. 따라서 시간의 역전이 아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㉞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를 다시 이어 간 것은, ㉞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청년은 뒤통수를 굵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 지.”

★ 교훈 평소엔 시공간적 배경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③㉠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 ②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 ③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 ①에 대해 ②의 부분이, ③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유’가 되는지 따져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 친구는 내 손의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갔다한다. 장손이장가갔다.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 가려들고왔더라.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 들어야건나.
[㉠]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 ㉠에서 ‘재미있다’고 ‘친구’가 말했다. 이 뒤에 ㉡의 편지가 나왔으며, 다시 ㉠로 돌아와서, 나(화가)도 이 편지 내용을 보며 재미있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중략] [㉠]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 교훈 ‘편지’라는 소재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 연결이 인과 관계인지를 물어보았다.

④㉠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 ②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 ③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 ①과 ②가 나온 것때문에 ③에서 화가가 표구사로 가는지를 따져봐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났다.
[㉠]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 비행기가 떠난 것을 보고, 편지 내용의 ‘떠나고’를 떠올렸으며 그길로 표구사로 가게되었다.



이를 우리가 ‘연상’이라고 한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 났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 **교훈** ‘연상’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다.

㉠㉡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① 다음에, ②에서 앞서 제시했던 내용이 다시 들어온 것인지를 따지고, ③에서 ‘화가’가 그 편지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따져줘야겠군.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 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 나무순주변에고기목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 마니쳐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돈조타.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앞서 ㉡의 내용이 나온바가 있다. 이후에 ㉠이 나왔으며, ㉠이 나온 다음에 ㉡이 나왔는데, 이는 앞서 나온 ㉡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다.이는 ‘화가’가 그 편지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 들어야건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 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나무순주변에고기목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 마니쳐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돈조타.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교훈** 장면과 장면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22~26] 갈래복합

난이도 하 ●○○○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1%	93%	2%	1%

은우샘과 한 방에 '공통점'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핵심을 물어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선지에서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다. 그럴 때는 눈에 띄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발등 찍힐 수 있는 유형이다.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 ②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덕성을 발견한다는 선지는 처음 본다. 하지만 기출에 나왔으니 의미를 알아가자. 이런 내용은 보통 자연물에서 교훈을 얻어낼 때 나올 수 있다.

덕성: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 덕, 인덕, 인품.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 ②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둘 다 없다.

(나)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②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8문단)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 달에서 덕성을 발견한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없다.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 ②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둘 다 있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 ①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 ②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계절의 변화도 없으며,

관조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

- ①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 ②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문단]

술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 이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자연물('술', '땅')에 대한 감상으로 계절을 제시했을 뿐, 계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 관조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관조적 태도는 중요한 개념이다.

관조적 태도: 감정 표현 없이, 묘사만 있는 태도.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확인하면 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전체적으로 다 자연 친화라 특정 구절만 들고 오기가 힘들 정도다.

(나)

전체적으로 다 자연 친화라 특정 구절만 들고 오기가 힘들 정도다.



핵심이니깐, 이 정도는 지문 확인 없이 할 수 있어야겠다.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 ②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둘 다 있어야 한다.



보통 자연물의 상황과 화자의 상황이 대비될 때 나타날 수 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 ①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 ②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는 부분이 없다.

→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나)

- ①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 ②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는 부분이 없다.

→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자연이 극한적인 상황이며

- ② 이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해야한다.



유치환의 「생명의 서」에서 볼 수 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 ① 자연이 극한적인 상황이며
- ② 이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해야한다.

→ 자연은 평화로운 상황이며,

→ 인간의 나약함도 없다.

(나)

- ① 자연이 극한적인 상황이며
- ② 이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해야한다.

→ 자연은 평화로운 상황이며,

→ 인간의 나약함도 없다.

난이도 하 ●○○○

23. ㉓,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는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② ㉔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③ ㉓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㉔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④ ㉓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㉔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⑤ ㉓와 ㉔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①	②	③	④	⑤
1%	2%	95%	2%	1%

은우샘과 한 방에 ㉓, ㉔를 동시에 묶어 놓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핵심을 주로 물어볼 것이다. 또한, ㉓, ㉔ 주변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① ㉓는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㉓와 날씨의 연관성을 확인해야겠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만물초 구경하러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㉓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 청명한 날에도 구름끼면 못 보는데, 오늘은 비 오는 날이라 지척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㉓는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 교훈 날씨와 관련해서 꽤 길게 썼다. 지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문제에 꼭 나온다.

② ㉔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4문단) 거리에서 ㉔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 이 길은 사람들이 없고, 소나무만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㉔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거리에서 ㉔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 교훈 ㉔ 주변은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③ ㉓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㉔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㉓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② ㉔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 두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㉓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만물초 구경하러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㉓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 만물초를 구경하러 준비하고 있다.

② ㉞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4문단] 거리에서 ㉞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중략)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 ‘나가는’ 길이라는 표현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 가고 있는 길임을 확인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① ㉞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선지	지문
㉞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만물초 구경하러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㉞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 교훈 ㉞ 주변부는 꼼꼼히 읽어야겠다.

② ㉞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선지	지문
㉞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거리에서 ㉞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 교훈 ‘나가는’이 현재진행형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④ ㉞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㉞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㉞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② ㉞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 두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㉞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㉞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웬다 하여**

→ 화자는 현재 일행들과 같이 있다.

② ㉞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거리에서 ㉞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① ㉞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웬다 하여

→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묻고 있다. 이때, ‘일행’이라는 글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⑤ ㉞와 ㉞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㉞는 화자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② ㉞는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㉞는 화자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㉞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중략]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 만물초 가는 길은 미끄러운 돌사다리가 있다고 한다. 걷기 어려운 곳일 것이다.

② ㉞는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거리에서 ㉞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 딱히 어려워보이지 않는군. 편하지 않을까?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① ㉞는 화자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천신만고’라는 말의 뜻을 알았다면 쉬웠을 것이다.
천신만고: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난이도 중 ●●○

2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11%	10%	76%	1%

은우쌤과 한 방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 문제는 항상 해당 부분을 읽고 나서 바로 푼다.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해당 부분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 ‘사자봉’이 ‘용소’를 굽어보므로, 용소 위에 사자봉이 있다.
그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 **교훈** 같은 말, 다른 표현에 익숙해져야겠다.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해당 부분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옮겨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 중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이라 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중략]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 **교훈** 시를 읽을 때에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뭇’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해당 부분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내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옹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 ‘돌 하나’는 화룡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뭇’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화룡이 옹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 교훈 주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④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화자’가 중의 말을 듣고
- ② ‘화자’가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지 제시하고 있다.



주체를 두 번이나 언급했으니, 이를 정확히 따져줘야겠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화룡이 옹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내가) 들으니 그럴듯해 건넌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갓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 화룡이 건너편 산에 올랐고, 나는 건넌산을 바라보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① 화룡이 옹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② (내가) 들으니 그럴듯해 건넌산 바라보니

★ 교훈 ‘건너편 산’이 지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각각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⑤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해당 부분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갓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갓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 교훈 지문에 선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난이도 중 ●●○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 ③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 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79%	4%	3%	10%

은우샘과 한 방에 ‘작은 따옴표’가 쳐져있는 문제는 지문에서 그 부분을 무조건 일일이 찾아줘야 한다. 안에 볼드체가 쳐져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볼드체가 없는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하나의 팁을 주자면, 보통 선지 순서는 지문 순서와 맞추는 경우가 많다.

①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술’이란 ‘파라솔’을 빨리 찾아야겠어.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해풍에 자란 술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 ‘술’의 모습이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웠기 때문에 마치 ‘파라솔’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밑의 자리가 정자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따라서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린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해풍에 자란 술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 교훈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초현실파의 그림’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 ② 동시에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한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 ‘바다로 나가는 길’에서는 ‘혼례식장’에서의 ‘신랑 신부’를 상상했고, 한편,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초현실파의 그림’같은 곳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한다. 즉,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한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열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뻘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 교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항상 기본이다.
‘다른’ 장소이면, 제발 ‘구분’ 하자!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 하기 전 있다.

③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 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뽀—얀’을 빨리 찾아야겠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 ‘뽀—얀’ 수말이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쓰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다가 젊다고 생각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 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 교훈 ‘수말 = 물거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달빛’과 ‘달의 물결’이 나온 부분을 찾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짝—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러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 ‘달빛 = 달의 물결’로 인식하고 있으며, 길 뿐 아니라, 솔밭, 철로,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빛이 비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달빛만이 짝—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러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 교훈 1 ‘달빛 = 달의 물결’의 관계를 알아차려야 한다.

★ 교훈 2 또한, ‘길’, ‘솔밭’, ‘철로’, ‘으리으리한 바다’처럼 ‘나열’이 되는 경우는 시험문제에 꼭 나온다. 이들은 모두 같은 의미이므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끝없는 사막’, ‘별의 세계’를 빠르게 찾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달빛은 크고, ‘사람’은 조그마하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교훈 대비 구도는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온다.

난이도 하 ●○○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 ①(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②(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③(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 ⑤(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 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①	②	③	④	⑤
1%	2%	91%	2%	4%

은우샘과 한 방에 <보기>의 지문은 지독하게도 구조를 맞춰놓는다. 진짜 꼼꼼히 읽어야 한다.

Step 1 <보기>를 이해해보자.

→ <보기>에 따르면, (가), (나)는 모두 ‘기행’과 관련된다. 따라서 모두 ‘여행 장소’를 잘 봐야겠다.

⇒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가)	(나)
사실적 기록	감각적 묘사



나는 시공간적 배경이 바뀔 때마다 체크해 둘 것 같다. 이것이 25번의 2번 선지와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

①(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에서
- 2 여기서 시간의 순서와 장소의 이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 ‘후에’, ‘넘어서서’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 교훈 시공간적 배경은 항상 체크해야 한다.

②(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술’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하였고,
- 2 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술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짹짹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 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푸르고’, ‘윤택하다’라면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술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짹짹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③(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가)의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2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1 (가)의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 우물집을 ‘지었기에’ ‘구경하’는 것에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을 새로 지었다길래 한번 구경갔어’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져

있다.

②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6문단]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 여관을 나서서, '낮에도 비었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②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 **교훈** 보조사에서도 맥락을 얻어갈 수 있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가)의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드러나지 않는군

④(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①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②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하고 있다. 날짜를 밝혀 기록했다는 것에서 일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②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중략)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 '7월 3일(금)'으로 시작하며,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날짜를 밝혀 기록했다는 것에서 일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중략)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 **교훈** 여러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겠다.

⑤(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①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②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❶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기억할 만하니까 기록했을 것이다.

❷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6문단]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기억할 만하니까 기록했을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❶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27-30] 고전소설

난이도 중하 ●●○○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②㉡: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③㉢: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④㉤: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⑤㉥: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①	②	③	④	⑤
89%	2%	2%	3%	3%

은우쌤과 한 방에 선지를 보니, 구조가 동일하다.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1) ‘주체’와, (2) ‘장면과 장면간의 이어짐’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다.

①㉠: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진옥’이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으며,
②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진옥’이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으며,
[장면 1]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 ‘진옥’은 ‘노인’과 갑자년 난중에 이별한 것은 맞지만, ‘진옥’은 화초암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전란을 극복한 것은 없다.

②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장면1]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 원수가 대성통곡한다. ‘원수=진옥’이며, ‘대성통곡=울고불고 난리’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① ‘진옥’이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으며,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나이다.”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 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 교훈 평소에 시공간적 배경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선지	지문
②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 교훈 평소에 인물의 명칭 변화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Step 4 선지를 바르게 고쳐볼까?

㉠: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헤어진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②㉡: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②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②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장면1]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 노인은 진옥이 자신의 눈 앞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자 기절하고 엎어진 것이다. 이는 격한 감정을 못이기면서 생긴 일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③㉠: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 2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1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 2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장면3]

원수가 대왕

진옥 to 용왕: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국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 ‘용왕’은 ‘진옥’이 노력해보겠다는 말에 만족하여 대희하였고, 동국 용왕을 무찌르라는 의미에서 군사 8만명을 주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진옥 to 용왕: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국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④㉡: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활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 2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활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1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 2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활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장면 4]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중략)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 하더라.

→ ‘진옥’이 실종됐다는 말을 듣고, 유승상이 대경실색하며, 부인과 소저와 함께 진옥이 살아 돌아옴을 두손 모아 기도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1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2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활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중략)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 하더라.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㉔㉕: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①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②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 5]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㉔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 원수가 동국 용왕에게 싸움을 돋우며 조화를 부리자, 동국 용왕이 대로하여 달려들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㉔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난이도 중하 ●●○○

28. ㉔~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㉔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②㉕은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당초 목적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③㉔은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전불절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㉕은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 ⑤㉕은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89%	3%	2%	4%	1%

①㉔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㉔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게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의미이다.



환상적이라는 말을 알아야 한다. '환상적' = 초현실적, 초월적이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2]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㉔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리 왈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 일위 동자는 옥피리 소리와 함께 등장한다. 옥피리 소리만으로도 환상적이지만, 뒤에 '수부왕'이 나온다. '수부왕'의 부하인 것이므로, 충분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소리와 동시에 등장했으므로, 충분히 인물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㉓는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㉓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 교훈 평소에 인물의 성격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②㉓는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당초 목적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㉓가 인물‘들’이 무사히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인물‘들’이 목적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2]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㉓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 일엽편주는 오직 일위 동자‘만’ 타고 온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㉓는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당초 목적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㉓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 교훈 인물‘들’처럼 복수의 접사가 붙는 경우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③㉓는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앞선 장면이 주변 풍광을 보여준다.
- 2 ㉓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며
- 3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 셋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1 앞선 장면이 주변 풍광을 보여준다.
- 2 ㉓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며
- 3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장면2]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외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㉓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 앞선 장면은 주변 풍광을 보여준다. 하지만 ㉓가 앞선 장면과 대비되지 않으며, 안절부절못하지 못하는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㉓는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외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㉓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 교훈 하나의 문장이라도, 여러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하나 따져줄 수 있어야 한다.

④㉓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㉓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 2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5]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㉓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 ㉔는 동국 용왕이 초월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수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㉔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 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㉔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 **교훈** 하나의 문장이라도, 여러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하나 따져줄 수 있어야 한다.

㉔㉕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㉔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㉔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장면 5]

이때 적진 군중에서 ㉔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 ㉔는 갈등을 해소한 것이므로, 감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항서를 받은 후에 원수가 이를 받았으므로,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한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㉔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이때 적진 군중에서 ㉔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 **교훈** 평소에 갈등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난이도 중하 ●●○

29. 다음은 학생이 밑줄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진옥전」에서는 진옥의 표류를 계기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되었다. 진옥이 표류해 도착한 공간에서는 진옥이 부친과 상봉했는데,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편, 진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 그 후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류는 진옥과 가족의 만남을 돕거나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5%	85%	4%	3%

은우쌤과 한 방에 이것도 <보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Step 1 <보기>를 정리해보자.

→ 진옥이 주인공이며, 진옥이 표류하면서, 도착한 공간에서는 부친과 상봉하며,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있다.



주인공인 '진옥'을 중심으로, 시공간적 배경을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나가야겠다.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1] 노인(부친)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 교훈 평소에 시공간적 배경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2]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 진옥과 부친은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향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 교훈 평소에 시공간적 배경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장면4]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 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한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 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 교훈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㉔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모름을 듣고 대희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오되

→ 우양 공주가 진옥이 실종된 것을 계기로, 모해할 뜻을 꾸며내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 교훈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㉕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정동한 to 황제: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비 시광도 오랑개와 내용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비와 동심협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 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 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 교훈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난이도 중 ●●○

30.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 ①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③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 ④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①	②	③	④	⑤
3%	76%	8%	6%	6%

은우쌤과 한 방에 범주화가 나올 때 어떻게 시험문제를 내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②와 ③의 관계를 본다면, 이 둘 중에서 정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Step 1 <보기>를 정리해보자.

→ ‘초월적 세계’는 ‘인간 세계’와 간극을 지닌 곳이면서 동시에, ‘인간 세계’에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다.



‘초월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반드시 구분해야겠다.

①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선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장면을 먼저 찾고, 이후에 선지 후반부의 인물의 ‘생각’을 빠르게 유추해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원수가 대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 원수가 자신은 인간, 용왕은 신이라고 하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 교훈 ‘간극 = 차이’임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다.

②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선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장면을 먼저 찾고, 이후에 선지 후반부의 인물의 ‘생각’을 빠르게 유추해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과인(남곡 용왕)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곡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 남곡 용왕과 동곡용왕 사이의 갈등이므로, 초월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한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과인(남곡 용왕)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곡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 교훈 범주에 민감해져야겠다.

③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선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장면을 먼저 찾고, 이후에 선지 후반부의 인물의 ‘생각’을 빠르게 유추해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용왕이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곡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온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 지라.

→ 남곡 용왕과 동곡용왕 사이의 갈등이므로, 초월적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처럼 땅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용왕이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곡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온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지라.

★ 교훈 범주에 민감해져야겠다.

④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선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장면을 먼저 찾고, 이후에 선지 후반부의 인물의 ‘생각’을 빠르게 유추해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것을 보고, 제장이 명장이라 칭찬한다. 제장은 용왕의 부하이므로 초월적 세계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 교훈 범주에 민감해져야겠다.

⑤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Step 2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선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장면을 먼저 찾고, 이후에 선지 후반부의 인물의 ‘생각’을 빠르게 유추해야겠다.

Step 3 근거를 찾아보자.

이때 적진 군중에서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진옥의 공덕을 치사하면서, 동해군으로 표창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1~34] 현대시

Step 4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 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난이도 중하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	87%	2%	1%

은우쌤과 한 방에 공통점을 묻고 있으므로, 핵심이 되는 것을 골라야겠다. 소거법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 ②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처리하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 공감각적 심상부터 찾아볼 수 없다.

(나)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 공감각적 심상부터 찾아볼 수 없다.



공감각적 심상은 웬만한 시에서 잘 없다. 따라서 두 시의 공통점이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해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처리하자.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해

아 하늘의 기둥들!

→ '!'를 통해 영탄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그리움이 아니다.

(나)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해

→ 영탄적 어조를 찾아볼 수 없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그리움도 아니다.



영탄적 어조는 '1. 감탄사 !, 2. 감탄형 어미, 3. 설의법, 돈호법'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 ②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그냥 웬만해서 맞는 선지다. 고민 크게 안 해도 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②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 살구꽃이 반복된다.

①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②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

→ 달래꽃이 반복된다.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 ②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①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②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계 매달려 있다면……

→ 꽃구름들과 낡은 귀신이 대립적이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나)

①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②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없다.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 ②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가)

①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없다.

(나)

①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없다.



말을 주고 받는 형식을 대화체라고 한다. 대화체는 웬만해서 잘 없다. 공통점으로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난이도 중 ●●○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A]: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 ②[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 ③[C]: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 ④[D]: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⑤[E]: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3%	15%	3%	74%

은우샘과 한 방에 범위가 정해져있으므로, 읽으면서 바로 바로 풀고가는 것이 좋다.

①[A]: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 ②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 이 집에서 저 집, 또 저 집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②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 구름처럼에서 형태를, 분홍빛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 **교훈** 제목이 살구꽃이다. 살구꽃의 이미지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②[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 ②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호의적 시선’ = 좋아하는 시선이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 소와 마을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 ②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 하늘 구름이 동네에 내려와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 **교훈** 구조가 같을 때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많이 고른 선지

③ [C]: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 ②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②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 꽃구름을 뒤로 한 채로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고 하고 있다. 이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이 피고 있음을 보고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 **교훈** 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④[D]: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 2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등치들이
균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 ‘검은 등치들’이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균소리 없이 서 있다고 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교훈 당연히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⑤[E]: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 2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어휘를 알아야 한다.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가 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 = 멀리 떨어진다’이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 대상을 싫어한다’이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1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 본다.

아 하늘의 기둥들!

→ 하늘의 기둥들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차를 타고 지나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차를 멈추고 뒤돌아 본다. 아 하늘의 기둥들!

★ 교훈 1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교훈 2 지향, 지양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난이도 하 ●○○○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②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③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쥐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①	②	③	④	⑤
1%	1%	2%	4%	91%

은우쌤과 한 방에 선지 잘라 읽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쪼개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부분을 먼저 보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①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 2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 저 하잘 것없는 한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고'있으니, 사소에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 교훈 당연히 받아들이야 한다.

②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

→ 바윗돌처럼이나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나왔으니, 충분히 강인하겠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야 한다.

③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

→ 역사와 위대한 힘을 이것들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

★ 교훈 지시어가 나오면 꼭 앞에서 나온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④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고평칠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고평칠 수 있'다는 것은
-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항상 내가 고평칠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 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

→ 손을 고평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결속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 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

★ **교훈** '손을 잡다 = 결속하다 = 연대하다 = 조화를 이룬다' 등의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⑤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1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 2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네 고운 청춘과 내가 더불어 가야 할 저 길을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동체의 갈등은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도 드러나지 않는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교훈** 평소에 시적 상황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

난이도 중하 ●●○○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①(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동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②(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발'의 움직임 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 ③(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 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 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 ④(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쫓'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 ⑤(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①	②	③	④	⑤
3%	3%	5%	85%	3%

은우쌤과 한 방에 선지 잘라 읽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쪼개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부분을 먼저 보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Step 1 <보기>를 이해 해보자.

(가)	(나)
일시적	영속성
경험 세계(생명과 자유)	관념적 세계(역사)

①(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동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동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②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중략)

아 하늘의 기둥들!

→ ‘구름’같은 ‘살구꽃’이므로, 꽃을 구름으로 비유한 것이며, 이어 꽃을 말하면서 ‘하늘의 기둥’을 말했으므로, 나무동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유는 시인의 독특하고 고유한 인식이므로, 내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동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중략) 아 하늘의 기둥들!

★ **교훈** 비유의 원관념과, 비유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②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 ① = ② 여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 꽃과 벌을 포착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작은 생명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③(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②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렵פות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 하늘과 땅 사이를 이끌고 가는 크나큰 마음이 있어서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	----

②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을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렵 뜻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	--

★ 교훈 ‘하늘과 땅 사이 = 역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④(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군.
 - ②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 ①과 ②를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 ① (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군.
이 꽃구름들 낚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 허영게 매달린 것이 낚은 귀신들같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지향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때맞춰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없다.

- ②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이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와 연결되는 것은 맞다.

→ 하지만, 역사적 전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의미이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① (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군.	이 꽃구름들 낚은 귀신들 처럼 그냥 허영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 교훈 1 지향, 지양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교훈 1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	지문
②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교훈 1 구조가 같으면, 의미가 같다. ‘역사 = 환히 트인 길’이다.

★ 교훈 2 전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⑥(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Step 1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 ①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 둘 다 만족해야 한다.

Step 2 근거를 찾아보자.

①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보여 주는군.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중략)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 꽃들의 생애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이므로, 일시성인 것이 오히려 자연의 섭리임을 보여준다.

②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 길이 멀하지 않을 것에서 영속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긴긴 역사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Step 3 선지와 지문을 비교해보자.

선지	지문
①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보여 주는군.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중략)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선지	지문
②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 교훈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